

## 음주 · 흡연하는 사회 초년병에게 엄중경고를



권 훈

연합통신 보건의료담당 기자

16년전 입학식을 치르고 담임교수 면담 때였다. 당시는 대학에도 담임제도 비슷한 게 있어서 특히 신입생들은 ‘특별관리’를 받는 영광을 누렸던 때였다.

나중에는 문학평론가로 꽤 이름을 날렸으나 그 때는 상당히 나이가 어려 동안(童顔)에다 수줍은 미소가 얼굴 가득했던 내 담임교수님은 30분 남짓 면담을 마치면서 “부디 건강에 조심하게”라면서 다소 영똥한 당부를 하시는데 야년간.

갓 스무살 한창 나이에다 돌도 삭일 수 있을 만큼 튼튼했던 나로서는 어느 교수님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그분의 당부가 다소 황당했었다.

그러나 그 분의 당부가 지닌 심오한 뜻을 이해하는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신입생 때부터 배운 담배와 잦은 음주로 건강을 상했다는感を 잡는데는 약 3년 가량이 걸렸고 ‘특별히 질병은 없으나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고 운동과 섭생을 멀리 하는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에 충실히 따르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런 경험은 사실 새삼스러울 것이라곤 전혀 없거니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웬

우리 의료인들과 보건관련 전문가들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증진을 바란다면 음주와 흡연을  
처음 시작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사회의 장년층들에게  
청년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사회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

만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같이 겪었을 것이다.

한가지 안타까운 일은 누구나 이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흡연과 음주를 분연히 뿌리치지 못할 뿐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고작 값비싼 보약이나 지어먹는 데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우리 사회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술, 담배를 끊거나 부지런을 떨면서 아침운동이라도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한 시각이 그다지 너그럽지 않다는 데 있다.

“운동, 좋지” 하면서도 누군가 주변에서 운동을 다닌다고 하면 “팔자 좋군” 또는 “인간답게 사네” 어찌구 하면서 시샘을 드러낼 뿐인 이런 사회 분위기는 우리들, 특히 30대부터 50대까지 남성들의 건강에 큰 위해요소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술도 마셔야 하고 담배도 피워야 한다.”

“나는 하루 6시간 잠자기도 바쁜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란 말인가. 그런 건 돈 있고 시간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신선노름이지.”

이런 저런 부정적 시각이 온존하고 있는 이 사회에 살면서 나 역시 매일 매일 건강을 좀먹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개인의 건강 증진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같은 냉소적인 사회 분위기의 개선에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정기적인 건강 진단을 받을 때마다 “운동을 좀 하셔야겠네요”라는 지적을 받는 직장인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해서 의사들이 할 일을 다했다고 여겨서는 안되겠다.

우리 의료인들과 보건관련 전문가들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바란다면 음주와 흡연을 처음 시작하는 대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장년층들에게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사회 운동이라고 벌여야 하지 않을까. ㉞